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설명절 맞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

성낙성 기자 jeb08585@ksmnews.co.kr 입력 | 수정 2025.01.23 19:39



↑↑ 농어촌공사성주지사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를 실시했다.사진/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제공

[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지난 22일 설명절을 맞아 성주 지역 내 마을회관 및 전통시장에서 공사의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및 농지은행사업 홍보를 진행했다.

성주지사 직원들은 성주군민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또한, 지역 내 농업인들이 궁금해하는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에 사업별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고령은퇴농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 신청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돈문 성주지사는 “더 많은 고령은퇴농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농지 매도대금과 별도로 농지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또한,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지은행이 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